

##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주체화양상 연구\*

김예니\*\*

### 목차

1. '여성적 글쓰기'의 관점으로 박경리 초기소설 읽기
2.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부인(否認)의 원체험'
  - 2.1. 아버지 부재(不在)와 어머니 부정(不定)
  - 2.2. 소문이라는 명예살인, 그리고 탈향
  - 2.3. 여성가장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가난이라는 이중고
3. 이분법적 여성관에 맞선 주체화의 가능성

### 〈국문초록〉

여성적 글쓰기(feminine writing) 관점에서 박경리 초기단편소설 속에 나타난 부인(否認)의 원체험이 여성인물에게 어떤 의미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살펴 박경리 소설의 여성주의적 성과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박경리 초기단편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이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딸로 이뤄진 가정에서 유년을 보낸다. 아버지의 모습은 아예 없거나 무척 부정적인 모습으로 제시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어머니는 여성성이 제거된 모성만 존재하는 인물로 그려지거나 주변의 멸시에 굴종하는 삶을 산 여인으로 제시되어 여성인물

\* 이 논문은 하동군이 후원하고 토지학회가 주최한 2018년 5월 19일 박경리 10주기 기념 연합 학술대회(경남 하동군 문화예술복지회관, 2018년 5월19일)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성신여대 강사

은 어머니를 동일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박경리 초기단편소설 속 여성인물은 자신의 기본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심리적 개별화의 어려움을 겪는다. 그리고 제시된 부인(否認)의 원체험은 명예살인에 준하는 고향 내 소문과 이로 인한 탈향이라 할 수 있다. 남녀에게 공히 함께 일어난 연애사건에 대해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마을 공동체에서 여성인물은 탈향을 선택한다. 연대의 시선을 거부당한 여성인물은 자폐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고 그녀가 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탈향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박경리 초기소설 속 부인(否認)의 원체험으로는 여성가장으로서 느끼는 성적 대상화와 가난이라는 이중고라 할 수 있다. 자신을 성적 대상화 하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이를 감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에서도 여성인물들은 이를 거부한다.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이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있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한’ 방법으로 여성인물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경리 초기소설이 갖는 여성주의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후 박경리의 작품 속에서 여성인물들이 보여줄 주체화양상이 가부장제에 비타협적이며 이분법적 여성관을 거부할 것임을 예고한다.

국문핵심어 : 박경리, 박경리 초기소설, 주제, 주체화, 부인의 원체험

## 1. ‘여성적 글쓰기’의 관점으로 박경리 초기소설 읽기

작가 박경리는 1955년부터 1959년까지 단편소설을 왕성하게 창작하다가 1958년 민주신보에 『애가』를 연재하면서부터는 장편소설을 주로 창작하였다. 『애가』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기간이 있지만, 본고는 작가의 전체 작품을 통틀어 단편소설이 집중적으로 쓰인 시기를 1959년까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시기의 작품들을 박경리의 초기소설이라 한정하겠

다.1)

박경리의 초기소설에 대한 논의는 주로 작가의 자전적 요소에 대한 평가에 집중되었다. 경험의 주관적 고백 형태를 넘지 못하면서 주체의식이 사회로 확장되지 못했다거나<sup>2)</sup> 자전적 경험에 서사적 거리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주체는 미성숙한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sup>3)</sup> 이는 작중 인물들이 기본정체성의 위기를 발생시킨 경험에 매몰되어 주관의 과잉상태에 놓여있음을 뜻한다. 아직 작가가 자전적 경험에 대한 객관적 거리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전망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반면, 박경리의 초기소설이 이후 작품들의 원형질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논의도 있다.<sup>4)</sup> 특히, 장미영<sup>5)</sup>의 최근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소설 속 여성인물들의 모습을 사회적

1) 이 시기의 작품으로는 『계산』(『현대문학』, 55.8), 『흑흑백백』(『현대문학』, 56.8), 『군식구』(『현대문학』, 56.11), 『전도』(『현대문학』, 57.3), 『불신시대』(『현대문학』, 57.8), 『영주와 고양이』(『현대문학』, 57.10), 『반딧불』(『신대양』, 57.10), 『벽지』(『현대문학』, 58.3), 『도표 없는 길』(『여원』, 58.5), 『암흑시대』(『현대문학』, 58.6), 『어느 정오의 결정』(『자유공론』, 59.1), 『암향』(『한국평론』, 59.6), 『채귀열』(『주부생활』, 59), 『돌아온 아이』(『세벗』, 59), 『비는 내린다』(『여원』, 59.10), 『해동여관의 미나』(『사상계』, 59.12)가 있다. 이 중 『암향』(『한국평론』, 59.6), 『채귀열』(『주부생활』, 59), 『돌아온 아이』(『세벗』, 59)를 제외한 13편은 박경리문학전집19권 『불신시대』(지식산업사, 1987)로 엮여 출판되었다. 본고는 박경리문학전집19권 『불신시대』(지식산업사, 1987)의 작품을 기본으로 한다.

이승윤, 『1950년대 박경리 단편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1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2, 229-233쪽.

2) 홍사중, 조남현 편, 『한정된 현실의 비극』,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44-56쪽.

김우중, 『인간에의 증오』, 위의 책.

김치수, 『불행한 여인상』,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1-18쪽.

3) 강진호, 『주체 확립의 과정과 서사적 거리감각 : 박경리의 60년대 소설 연구』,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12, 80-102쪽.

한점돌, 『박경리 문학사상 연구(2)- 박경리 초기소설과 에고이즘』, 『현대소설연구』, 제49호, 2012, 359-389쪽.

4) 유중호, 『여류다움의 거절』,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339-349쪽.

김상욱, 『박경리의 초기소설연구-증오의 수사학』, 『현대소설연구』, 제4호, 한국현대소설연구회, 1996.6, 287-308쪽.

상호작용의 결과로 보면서 박경리의 초기 단편 속 여성인물들을 유형별로 분류한다. 그리고 이런 여성인물들이 박경리 문학 전체를 관통하는 원형질로서 여성인물의 성격과 자질을 공유하며 진화한다 주장한다.

이렇듯 초기소설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작품 속 자전적 요소에 대한 평가이며 이런 자전적 요소들이 향후 박경리의 작품 속에 어떻게 문학적으로 승화되어 제시되는가 하는 점이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초기단편소설이 지닌 여성경험의 특수성과 여성인물의 주체화 양상에 집중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박경리의 초기작품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원형질을 공유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더라도 그 시기, 그 작품이 갖는 내적 특징에 천착한다면 충분히 초기작품에서도 박경리 문학의 개성과 문학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의 어떤 경험이 작품을 추동하고, 인물의 세계관을 조율하는지 살피면서 작품 속에 형상화된 인물의 내적 독백과 자이분열적 행동들을 보다 징후적으로 독해하고자 한다. 여성인물의 체험이 어떻게 여성의식으로 발현해 나가는지 여성적 글쓰기(feminine writing)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박경리 소설 속 여성인물의 주체화 양상을 검토하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박경리 초기소설의 여성주의적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여성적 글쓰기’를 개념적으로 정립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엘렌 식수는 말한다. ‘여성적 글쓰기’라 말하는 순간, 적대적 이분법에 따라서 작동하는 오래된 사유들에 항상 포섭되어버리기 때문이다.<sup>6)</sup> 하지만 ‘보편성’이라는 가치를 획득하지 못했다거나 개인적 서사에 머물러 사회적 의미로 확장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 작품들의 가치를 재평가하는데 ‘여성적 글

5) 장미영, 『박경리 문학의 여성인물 원형 연구-초기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권 1호, 대중서사학회, 2018, 449-477쪽.

6) 배지선, 『해체, 글쓰기의 ‘여성적 실천’: 식수(cixous)의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하나의 독해』, 『2015 여성학논집』, 제32집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5, 3-28쪽.

쓰기'는 의미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여성적 글쓰기'는 글쓰기의 문제란 보편의 문제로 환원되기 이전에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에 의거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분법적 사고에 저항하고 개인적 경험의 의미를 축소하지 않는다. '여성적 글쓰기'에서 개인의 경험이란 단수 개인이 아닌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기억과 시간을 가진 다수의 경험을 의미하며 개인의 경험을 공유한 타자와 소통하기 위한 글쓰기이기에 경험의 의미를 사적인 것으로 제한·한정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적 글쓰기'는 자축적인 글쓰기, 타자의 다름을 침해하지 않는 글쓰기, 상호주체적인 글쓰기, 소수자나 하위주체를 위한 글쓰기라 할 수 있다.<sup>7)</sup>

여성의 고유한 경험을 기억하고 재현함으로써 '자기확인의 글쓰기'로 자아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거나 확립해나가는데, 자전적인 여성경험의 형상화는 여성소설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sup>8)</sup> 더불어 작가가 어떤 경험을 어떻게 내면화하여 작품 속에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하는가를 '여성적 글쓰기'의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도 작품이 지닌 다층적인 의미를 해석하는데 또 하나의 길을 제시한다. 박경리의 초기소설부터 반복적으로 형상화되는 인물의 특징은 결벽증적 성격의 여성인물이 보여주는 부조리에 대한 비타협성, 그리고 여성의 독립과 자존, 나아가 정체성 위기 극복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여성인물이 가진 독창성과 저항성에 머물지 않고 페미니즘 비평의 차원에서 박경리 초기소설 속 인물들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여성인물의 성격적 특징이나 행동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여성인물이 겪은 경험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작가가 문제적으로 생각하는 당대 여성의 특수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작품 속에 드러난 자전적 경험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7) 안미현,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과 가능성』, 『사고와 표현』, 제2집 1호,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09, 77쪽.

8) 김혜정,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1999, 8쪽.

여성인물의 인식적 한계와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초기 단편소설 속 여성 인물들이 어떤 주체화양상을 드러내는지 살펴도록 하겠다. 이는 그동안 주관의 과잉과 전망의 부재라는 평가에 대한 반론이 될 것이고 초기 단편소설이 가진 문학적 의미를 보다 균형 있게 읽는 방법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 2. 박경리 초기소설에 나타난 ‘부인(否認)의 원체험’

논의에 앞서 ‘부인(否認)의 원체험’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부인(否認)의 원체험’이란 기본정체성이 부인(否認)된 최초의 경험을 의미한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기본정체성이 부인(否認)되었던 최초의 경험, 즉 ‘부인(否認)의 원체험’을 통해 남녀는 모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각성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는 유아적 동일시를 통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한다. 사회적 역할은 성역할을 전제하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는 ‘심리적 개별화와 사회의 내면화’에 이르면서 ‘성인로의 입사과정’을 거친다. 이때 아이는 자아의 각성과 연대의 시선을 통해 사회로 편입되어 한 사람의 주체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성인이 된다. 그리고 ‘부인(否認)의 원체험’은 무의식의 영역으로 퇴거하여 여러 심리적 현상과 의식적 성찰의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9)

그런데 ‘부인(否認)의 원체험’을 기억하고 진술하는 방식에서 남녀의 차이는 여실히 드러난다.10) 여성의 경우, 기본정체성은 남성보다 더 안정

9) 김경수 외,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229-249쪽.

10) 가부장제적 질서는 여성, 남성 모두에게 억압적이다. 하지만 가부장제에 반항하는 여성과 남성의 모습은 무척 다르다. 남성작가의 작품일 경우, 희생당하는 누이-어머니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갖거나 가부장제의 대리자 어머니, 누이에 대한 거부, 아니면 순수한 처녀성의 상징인 여인과 타락의 상징인 여성상, 예를 들어 창녀를 통해 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유디스 키진 가디너,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

되어 있고 여성의 유아적 동일시는 남성보다 덜 예정적이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신을 거세할거라는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근은 권력의 상징이고 여성은 결핍의 상징(남근의 결핍)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적 역할은 남성들보다 더 엄격하고 덜 다양하다. 그래서 여성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신의 경험과 인간의 모범형으로 받아들여지는 남성적 경험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스러워한다. 결과적으로 여성에게는 자아개념의 범위가 특히 혼란스러울 수 있으며 여성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인공의 주체화양상은 이러한 불협화음, 자신의 자아개념과 사회적(남성적) 모범형 사이의 모순과 혼란스러움을 반영하고 있다.<sup>11)</sup>

라캉(J.Lacan)에 따르면 ‘주체’란 ‘타자’와 구별되는 자기만의 정체성(자기동일성)을 갖는 존재다. 주체는 자신이 가진 관념적인 자아 이미지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상상적 동일시’ 단계를 거쳐 나를 객관화하는 타자를 통해 ‘나’를 형성하는 ‘상징적 동일시’ 단계에 이른다. ‘상징적 동일시’ 단계에 들어서면 사람은 타자의 욕망을 통해 자신을 조정하고 타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 주체화에 이른다.<sup>12)</sup> 다시 말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여러 제도와 습관을 자신의 행동 속에 내면화해야 진정한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는 개체가 어떻게 인간을 둘러싼 문화적 질서 속에 포섭되어 가는가의 문제이다. 하지만 라캉의 이론처럼 여성인물이 자신을 향하는 타자의 욕망을 통해 자신을 조정하거나 공동체의 여러 제도와 습관을 자신의 행동 속에 내면화할 수 있을까. 이는 라캉의 이론이 하나의 성, 하나의 질서만을 설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sup>13)</sup> 결국, 여성의 주체화양상이란 주체화 불가능성을 확인하게 되는 조건에 대한 탐색이 될 것이다. 자아정체성에 대한 확립을 통해 ‘주체’로 상

사, 1988, 231쪽.

11) 위의 책, 225-228쪽.

12)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자크 라캉-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11-95쪽.

13) 배지선, 앞의 글, 4-5쪽.

징계에 편입하지 못하는 여성인물이 보여주는 ‘신경증적 억압이나 정신 병적 거부’양상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불완전한하고 불안정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여성인물의 목소리에 집중할 것이다.

라캉의 주체화이론에 따르면 박경리 초기작품 속 여성인물들은 상상적 동일시 단계에 머물러 있다. 외부세계를 완강히 거부하고 타자의 시선을 거치지 않은 자아 이미지로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이를 기질적인 문제로 한정해 스스로 변화시킬 거부하는 모습은 성인으로서의 입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상징계에 ‘부재’라는 기표의 ‘여성’으로 편입되길 거부하는 유아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왜 박경리의 초기단편소설 속 여성인물들이 외부세계를 완강히 거부하게 되었는가. 왜 타자와 교류하지 못하고 자폐적인 상태로 변화를 거부하는가 그 이유를 살펴볼 문제다. 왜 박경리의 여성인물들은 기존 질서에 포섭되길 거부하고 있는가. 바로 여성인물이 겪은 특수한 경험, ‘부인(否認)의 원체함’을 살펴보고, 이 경험이 여성의 삶과 가치관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 이 경험이 왜 주체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지 알아보겠다.

## 2.1. 아버지 부재(不在)와 어머니 부정(不定)

박경리의 작품 속에서 드러나 있거나 혹은 흔적으로만 남아있는 경험 중 ‘부인(否認)의 원체함’으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는 아버지의 부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시종일관 박경리의 작품 속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은 채 ‘아버지 부재’라는 조건이 전체 작품을 조율한다. 아버지, 어머니와 딸의 관계 설정을 분석하면서 박경리는 작품을 통해 아버지의 과정을 남성작가와와는 어떻게 다르게 시도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박경리의 작품 대부분은 홀어머니와 외동딸의 서사가 중심을 이룬다. 19세기 이래로 어머니와 자녀의 유대가 중요해지면서 자녀에 대한 “애정적 보살핌, 자기희생, 이타주의의 특성은 어머니다움의 본질”<sup>14)</sup>로 정의되



는데 박경리의 작품 속 어머니 역시 ‘개인’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모성이 데올로기에 매몰되어 희생적 삶을 사는 모습이다. 박경리 초기작품의 어머니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에 ‘딸’을 위치시킨 후 딸에게 강한 집착을 보이는데 이는 ‘딸’을 통해서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어머니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존재로 생존을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며 자신의 미래는 철저히 자식의 미래에 예속시킨 여성으로 딸에게는 부정적인 여성상이다. 이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딸’의 시선은 냉정할 수밖에 없다.

어머니는 아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손을 잡고 손자를 잃은 하소연을 했다. 진영은 그러는 어머니가 싫었지만 그러나 딸 하나를 믿고 산 그가 여러 가지 면으로 서러운 위치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sup>14)</sup>

박경리의 초기소설 속 딸들은 하나같이 어머니의 신세한탄을 경멸하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인정한다. 역으로 어머니가 자기 외에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리적으로 어머니에게 따뜻한 위로나 공감을 표현하지 못한다. 딸은 어머니와의 동일시를 거부하지만, 운명적으로 어머니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공포를 안고 있기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냉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이 부재한 어머니는 여성성이 탈락된 채 모성만 남은 무성적 존재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편의 빈자리에 딸을 위치시키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딸에게 부가한다. 이런 조건 하에 모녀관계는 딸에게 무척 부담스럽고 억압적이다. 어머니는 ‘딸’을 통해 존재가치를 확인하려 하지만 딸은 어머니와 반대로 모녀관계로부터 벗어나 ‘개인’이 되고 사회적 관계 속에 스스로의 위치를 찾을 수 있을 때 안정적인 자기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하

14) 배리 소은, 권오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역,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5, 24쪽.

15) 박경리, 『불신시대』, 박경리문학전집 19 『불신시대』, 지식산업사, 1987, 9쪽.

지만 박경리 초기소설 속 딸들은 모녀관계의 억압성을 인식하고 어머니를 자신의 여성상으로 동일시할 수 없음을 이는데도 이 관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부재하는 순간부터 딸은 어머니에 대한 부양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는 순간, 어머니는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무성적 존재로 모성의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고 이는 딸이 더 이상 동일시할 수 없는 대상이 된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대체로 박경리의 초기소설에는 홀어머니와 외동딸 관계 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작품은 「반딧불」과 「벽지」 정도이다. 꽤 많은 작품을 발표하면서도 그 안에 아버지가 등장하고 일정한 역할을 한 작품이 극히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전적 요소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를 제외하고 박경리의 초기소설 속에서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버지의 모습이 가장 구체적으로 형상화된 「반딧불」을 통해 박경리 작품 속 딸에게 아버지 부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언제나 고향이라고 돌아오면 으레히 거리 위에서 한두 번은 마주치고 마는 피동피동하게 살이 찐 아버지, 그 아버지 꼴이 보기 싫은 이유만으로 고향이 황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다.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가 그 어질고 어리석은 천성 때문에 남의 꾀임에 빠져 개가를 잘못하여 한달도 못 살고 고향으로 도망쳐온 일이 있었다. 그후 십여 년 동안 한결같이 두메를 찾아다니면서 보따리장사를 해온 어머니였다. 오랫동안을 떳떳하지 못한 인종(忍從)의 생활에서 오는 어머니의 모습, 그렇게 만들어버린 고향이란 풍토, 아무리 아름다워도 주영에게는 아름다울 수 없는 고향이요, 그곳으로부터의 탈출만이 그녀의 오랜 염원이었던 것이다.

그러한 어머니가 요즘에 와서 주영이 몰래 남편으로부터 다소의 원조를 받고 있는 것이다. 주영이 과년해지고 대학을 다니게 되니 정애(情愛)보다 주판

속으로 그러한 원조를 하게 된 아버지를 주영은 끝내 거리 위에서 외면을 해 버리는 것이었다. 도시 그것은 구역질 나는 일이었다.<sup>16)</sup>

고향이 황량하게 느껴지는 것은 어머니의 재가 이력을 문제 삼는 고향의 풍토 때문이다. 정작 어머니를 불행으로 떠민 장본인인 아버지는 불편함 없이 고향 거리를 활보하지만 어머니는 재가했다 실패하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땃땃하게 고개 들고 다니지 못하는 인종(忍從)의 삶”을 살고 있다. 여기서 고향이란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치는 전근대적 성윤리와 보수적 여성관이 내재된 곳이다. 이런 이유로 주영은 어머니 홀로 이 모든 어려움을 겪게 만든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외면한다. 외면이란 애써 없는 사람 취급하는 태도이고 존재를 지우고자 하는 의식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주영에 대한 애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에 대한 정을 느껴보지 못했기에 주영의 눈에는 “피동 피동 살이 썩” 아버지의 외양이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딸에 대한 애정보단 딸의 출세길에 대한 기대 속에서 원조를 결심하는 아버지의 이해타산적 태도가 구역질이 난다. 이렇듯 아버지는 부재하거나 외면하게 되는 존재이고 부정할 수밖에 없는 대상으로 그려진다. 이런 아버지는 딸에게 공포의 대상도 아니고 경외의 대상도 아니다. 다만 부재하고 외면하고 부정하게 되는 대상이다.

이런 의미에서 딸의 기본정체성은 획득과 동시에 부인되었다.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은 어머니, 아버지 양자 모두와 동일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 ‘부인(否認)의 원체험’은 딸이 타자와 교류하고 사회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또한 안정적인 기본정체성을 형성했던 좋았던 과거마저 없는 상황에서 작중 여성인물은 ‘부인(否認)의 원체험’이 자신의 삶을 규정하는 비극적 전망을 제시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자유

16) 위의 책, 106쪽.

로울 수 없는 조건이다.

『벽지』에서도 불행의 원인이 되고 이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무능력한 존재인 아버지가 등장한다. 이런 아버지를 주인공인 혜인은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는다. 소략되어 있는 어머니, 아버지의 전사를 언급하면서도 혜인은 아버지를 강상호씨라고 부른다. 이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혜인의 의식적인 노력을 뜻한다.

숙인의 아버지인 강상호(姜相浩)씨가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을 때, 역시 한국인 학생으로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영숙(英淑)이라는 여자를 알게 되어 연애상태에 빠졌던 것이다. 그 때 이미 처자가 있었던 강상호씨는 불장난처럼 모든 것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리하여 혜인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고 뒷감당에 당황한 남자의 부실(不實) 앞에 여자는 스스로 생명을 끊고 말았다. 17)

작중 아버지는 상황을 만들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불행의 씨앗을 낳지만 책임지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아버지가 낳은 불행의 씨앗은 고스란히 어머니와 딸의 불행으로 이어져 이를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은 딸이다. 이렇게 외면이든 죽음이든 아버지의 부재라는 조건은 현재 불행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아버지 부재의 조건은 딸이 태어남과 동시에 불행은 예정적이었고 이는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비극적인 전망의 조건이 된다. 이런 조건에서 작중 딸이 여성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거부한 아버지와 이로 인해 불행했던 어머니와의 객관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타자와의 교류와 연대를 경험하고 사회로 나아가야만 딸은 기본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여성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타자와의 교류가 어려운 작중 여성인물의 성격적 특성상 여성정체성 형성을 위해 여성인물은 탈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여기서 탈향이란 아버지-어머니와 심리적 거리감을 유지하는데

---

17) 위의 책, 216쪽.

어려움이 따른다면 현실적인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각성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박경리 초기소설 속 여성주인공들은 아버지의 부재라는 원체함을 통해 고향이라는 작은 사회가 가진 가부장성과 여성 억압적 현실을 먼저 체득하게 되고 이는 성인으로서의 입사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동한다. 아버지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사회의 질서와 관습에 강한 반발감을 갖고 이 질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모성은 여성 삶의 불행한 미래를 보여줄 뿐 어떤 정서적 지지나 연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 상징계로 편입하지 못하는 여성인물들은 이에 반항하며 히스테릭한 목소리를 내게 된다.

## 2.2. 소문이라는 명예살인, 그리고 탈향

다음으로 ‘부인(否認)의 원체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고향에 퍼진 소문이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소문’이란 불평등한 젠더관계 속에서 여성에 대한 명예살인으로 결과했다. 이를 통해 여성인물은 탈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고향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왜 여성주인공이 타인과 교류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는지, 탈향을 선택한 후 여성주인공의 삶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도록 하겠다.

앞서 『반딧불』에서도 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무성하면서 고향은 벗어나고 싶은 공간이 된 것을 살펴봤다. 『전도』에서도 남녀에게 공히 일어난 연애사건임에도 여성에게 더욱 무자비하게 가해지는 비난으로 인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여성인물이 등장한다.

서로가 사랑했다

숙혜는 이 절대적인 목숨이 존재하는 이유와 대치시켜 볼 어떠한 것도 알지 못했다. 숙혜는 현재의 생활을 혐오하고 청산에 골몰했다. 서로가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한 그런 초보적인 연애였는데도 불구하고 숙혜의 대단한 이혼 요청으로 말미암아 구구한 낭설이 거리거리에 유포되었다.

숙혜는 순명의 단호한 태도를 기다렸다. 그러나 사나이는 그러지 못했다. 숙혜의 어머니가 깊은 심화 속에서 죽어버리자 숙혜의 모습도 H읍에서 사라지고 말았다.<sup>18)</sup>

대동아전쟁 말기 정신대와 관련한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 열여덟 살에 선 한 번 본 남자와 결혼한 숙혜는 당시 공동체의 분위기와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며 이를 어기는 것 자체를 죄스러워하는 여성인물이었다. 하지만 사회적 규범과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한정되기에 숙혜는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녀의 자아는 세속에 길들여지지 않았다. 동화할 수 없는 생활을 외면하고자 책을 읽었고, 아이에게 모든 것을 쏟아보기도 하지만 숙혜는 결코 ‘차지 않는 빈구석’을 느끼며 살았다. 그런 그녀의 일상에 균열을 내는 것은 강순명과 그의 만남이다. 강순명은 숙혜의 ‘석연치 못한 삶’에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만드는 대상이었고, 숙혜가 발견한 분명한 자기욕망이었다.

숙혜가 자기 욕망을 발견하고 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최초의 각성이다. 이런 이유로 강순명은 숙혜에게 대체불가한 존재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여성과 아내라는 고정된 성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 당대 여성의 상황에서 결혼한 여자, 아이엄마의 이혼 요구란 공동체 질서를 흔드는 위협적인 도전을 뜻한다. 『반딧불』에서 고향이 엄마에게 “떴떴하지 못한 인종의 삶”을 요구하며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비난을 쏟아내는 마을의 풍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전도』의 H읍은 숙혜의 존립근거를 송두리째 흔들어놓는다. ‘자기 희생적’ 모성성을 거부하고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고 긍정하는 여성에게 고향은 배타적이었고 타자의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알고 살았던 어머니는 딸의 소문이 곧 딸을 향한 명예살인이자 사망선고임을 알고 심화로 죽음에 이른다.

강순명의 배신과 홀어머니의 죽음으로 H읍에 머물 이유가 사라진 숙

18) 위의 책, 290쪽.

혜는 고향을 떠나고 H읍과의 인연을 모두 끊어버리고 철저히 혼자가 되는 삶을 선택한다. 새로운 정체성 형성을 시작하지 못한 채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한 숙혜는 타자와 연결되는 모든 통로가 폐쇄된 채 자기 안에 유폐된 것이다. 이렇듯 자의식을 가진 여성이 자아에 눈뜨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할 때, 고향은 연대의 시선을 거부하고 비난과 배제의 논리로 여성인물을 추방한다. 여성의 자의식을 불온한 것으로 보는 전근대성이 여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이다.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여성인물은 더 이상 연대의 시선을 요구하지 못하고 새로운 여성정체성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생존마저 위협을 받는다. 『전도』의 숙혜가 폐쇄적이고 타인과 교류하지 못한 채 자신을 자폐적인 상태로 가두는 원인에는 결벽증적인 성격 탓도 있겠지만, 고향에서 경험한 ‘부인(否認)의 원체함’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전도』의 결말은 숙혜의 자살이라는 해석이 타당하다. 숙혜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갖는 비극적 전망을 극복하지 못한 채 자신을 유린하려는 주인집 남성을 도발하면서도 저항하지 않으므로써 자살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남성인 경우는 같은 상황이라도 그 사정이 조금 다르다. 『목련 밭』에서는 『전도』의 H읍에서 발생한 강순명과 숙혜의 사랑이야기가 설정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서사화된다. 『목련 밭』은 음악선생인 상현과 제자 규희의 사랑이야기로 그들은 음악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 하지만 유부남 선생님과 어린 제자의 사랑은 악의적인 소문의 대상이 되고, 남성주인공은 소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보단 이를 덮어둔 채 서로를 위해 학교를 떠나기로 한다. 『목련 밭』은 『전도』에서 그런 강순명과 숙혜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숙혜의 이혼 요구에 마음이 발각 뒤집혔을 때 침묵을 선택한 순명에게 절망을 느끼며 고향을 떠나는 숙혜와 다르게 『목련 밭』의 상현은 제자 규희의 구애에 그녀의 뺨을 때리고 이 사실이 소문이나게 되자 서로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한다. 순명과 다르게 상현은 사랑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이런 방식으로 선택한 것이다.

여성인물들이 사랑을 구하고 남성인물들이 이에 화답하지 못하는 것은 같지만 『전도』에서는 공동체의 비난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남성의 나약함을 원망하고 이에 배신감을 느끼는 여성의 서사가 중심이라면 『목련 밭』에서는 공동체의 비난에 서로를 위해 공동체를 떠나기로 결심하는 남성인물의 내적 서사가 중심을 이룬다. 『전도』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비난과 명예살인, 이로 인한 탈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목련 밭』은 남성인물이 제자에게 느낀 사랑의 감정을 중심으로 이별 또한 상대에 대한 배려에서 이뤄졌음을 밝히고 있다. 『전도』의 숙혜가 홀어머니를 여위고 더 이상 공동체에서 살 수 없게 되어 탈향하게 되는 것과 다르게 『목련 밭』의 상현은 여성이고 또 아직은 한참 어린 제자를 지키고, 자신의 아내와 가정을 지키는 방법으로 이별을 선택한 것이다. 이 이별은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한 선택이고 학교를 떠나서도 상현에게는 또 다른 도전과 삶이 기다리고 있기에 그는 사랑에 대한 여운을 간직한 채 이별을 선택한다.

『목련 밭』의 상현이 낭만적 사랑을 위해 기꺼이 소문의 희생자를 자처한다면, 『전도』의 숙혜는 소문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생존의 공간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추방당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소문은 남녀에게 각각 다른 강도의 비난을 던진다. 공동체로부터 거부당하는 ‘부인(否認)의 원체험’은 남녀의 삶에 각각 다른 무게로 자리 잡아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친다. 딸에게 더욱 가혹한 세상의 규범은 딸의 새로운 정체성 모색에 질곡이 되고 딸은 ‘부인(否認)의 원체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 전략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연대의 시선을 거부당하면서 위축된 자이는 더욱 방어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타자와 소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자이는 각성을 통한 성인으로의 입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빠진다. 자폐적이고 결벽증적인 성격의 여성인물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박경리의 초기단편소설들은 보여주고 있다.



### 2.3. 여성가장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가난이라는 이중고

무엇보다 박경리 초기작품 속에서 가장 많이 서술되는 ‘부인(否認)의 원체험’은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 모계 중심 가족의 가장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부조리라 할 수 있다. 전쟁 후, 가장으로서 그녀가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다. 남편은 전쟁 통에 폭사했고, 아들의 경우 수술대 위에서 이렇다 할 방도도 간구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렀기에(『불신시대』, 『암흑시대』) 경제적인 어려움은 비극의 원인이자 결과다. 남편을 잃고 더욱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아들을 잃게 된 악순환 속에서 여성인물은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인식하고 대결하게 된다.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생존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삶이 감옥이 된다는 것을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다.(『영주와 고양이』)

하지만 박경리의 초기작품 속 여성인물들은 세속적인 것과 타협하지 못하는 결벽증적인 성미라 이해타산에 약하다. 더군다나 여성의 몸으로 남편 없이 살다보니 여성가장으로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경제고와 함께 자신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을 모두 감내해야 하는 이중고를 의미했다. 『흑흑백백』의 혜숙은 “아니꼬고 더러우면 껍하니 침 뱉고 돌아서버리는” 성미로 그의 결벽성은 “가난한 그를 더욱 가난하게 하였다.” 자신을 향락의 대상으로 보는 상사의 성희롱에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지 못하고 사표를 던진 것이다. 게다가 계주가 돈을 가로채는 바람에 계돈마저 손해를 보게 된 혜숙은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인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의 옛 친구 현선생을 통해 학교에 취직자리를 알아보던 중 혜숙은 자신을 성적 대상화하는 현선생의 시선을 느낀다.

「생전에는 그렇게 친구도 많더니만,」

혜숙은 감정의 연막을 치는 동시에 친구의 아내였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슬그머니 해보는 것이다. 현선생의 얼굴에는 약간 표정이 인다. 그러나 그것은 짧은 일순간이었다. 평정한 표정으로 돌아간 현선생

얼굴에는 다시 이상한 웃음이 감돈다. 혜숙은 치욕과 패배의 감정이 그의 부드러운 귓전까지 붉게 물들이는 것이었다. 현선생의 웃음은 혜숙의 연막 전술에 대한 조소였기 때문이다.

(…)

잠자리가 편찮아서 이리저리 베개 위에 얹은 머리를 돌리다가 눈을 감는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이다. 취직이 되는 길몽을 나에게 주시라는 가없는 기도인 것이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뻘히 쳐다보면, 뜻을 품은 현선생의 눈알이 여러 곳에서 혜숙을 쏘아보는 것이었다.<sup>19)</sup>

『흑흑백백』의 혜숙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자신을 쏘아보는 시선들을 느낀다. 죽은 남편의 친구인 현선생으로 대표되는 눈알은 어둠 속 여기저기서 혜숙을 쏘아본다. 쏘아보는 시선은 혜숙을 노리고 있다는 의미이고 이는 혜숙을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이다. 이런 시선을 보내는 자와 받는 자 사이에는 권력관계가 숨어있는데 권력관계가 형성된 까닭은 취직자리 청탁 때문이다. 사정을 호소하고 부탁을 하는 쪽이 권력관계상 약자일 수밖에 없고 이런 권력구도는 위계에 따른 성적 대상화로 결과한다. 이미 이를 매몰차게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경험이 있는 혜숙은 이런 시선에 불쾌감을 표시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당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는 전근대적인 인식의 연장에서 남편 부재상황은 소유자가 사라졌음을 의미하기에 전 직장의 상사도, 남편의 친구도 노골적으로 혜숙을 성적 대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결벽증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혜숙에게 자신의 존엄을 침해하는 남성들의 태도는 타협할 수 없는 것으로 혜숙은 자신의 자존과 죽음 사이에서 부당하게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서사로 변주되지만 전쟁미망인으로서 여성가장이 겪는 이중고는 여성인물의 사회화를 가로막고 부당한 선택과 타협을 강요한다. ‘심리적 개별화와 사회의 내면화’를 통해야 온전한 주체로서 자아개념을 확보하

19) 위의 책, 56-57쪽.

게 되는데, 박경리 초기작품 속 여성인물들은 사회를 내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부장적 질서와 남성중심적 섹슈얼리티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로 이를 내면화 하는 순간 나의 자의식과 생존에 위협적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여성가장이 겪는 이중고는 사회화를 가로막는 ‘부인(否認)의 원체힘’으로 작동한다. 『시정소화』나 『흑흑백백』에는 변화된 세상에 용의주도하고 약삭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손해를 보는 세태가 그려지고 있다. 작중인물의 눈에 비친 사회는 자신의 존엄이 무시 되더라도 생존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세상의 부조리와 타협할 수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속물화된 사회인 것이다. 하지만 작중 인물들은 하나같이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성미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그들에게 부조리와의 타협과 자존을 지키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은 살아도 죽은 상태이거나 살기 위해 죽어야 하는 부당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다.

『흑흑백백』과 『계산』의 여성주인공들은 자신의 결벽증적인 성격이 원인이 되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오해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런 비슷한 패턴이 재차 사용되는 것은 당시 사회의 부조리로 선의가 왜곡된 여성인물이 어떻게 사회로의 편입을 거부당하는가 보여줌과 동시에 여성인물이 갖는 의지와 무관하게 사회는 여성에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성인물의 노력 여하와는 다른 문제인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 여성이 미래에 대한 주체적인 전망을 갖는 것은 어렵다. 사회로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런 조건에서는 타자를 발견하고 연대를 도모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박경리 초기 작품 속 여성인물들이 갖는 삶의 전망은 우울하고 회의적이다. 좋았던 과거도 없고, 더 나은 미래의 전망도 없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감지하고 이를 수용한다.

하지만 그 수용의 자세는 보수적인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다. 나쁜 현실을 타협 없이 살아냄으로써 자신의 자존을 지키는 방식으로 세상과 대결하는 것이다. 강인한 모성의 희생이 아니라 여성가장의 자기존재방식과 현실상황을 연결하여 보여줌으로써 보다 현실에 근거한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부재한 남편을 대체하는 희생하는 모성이

아닌 자존을 지키고자 타협하지 않는 저항의 주체로서 여성가장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경리 초기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은 사회비판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낸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태도와 삶에의 의지는 『불신시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와 의료계마저 인간애를 잃고 세속화된 물질만능주의 사회에 절망한 진영은 세상과 타협하지 못하고 자폐적인 상태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는다. 그리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 자의식을 벗어던지고 맹목적으로 의지하고자 종교를 선택하지만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모든 것에 절망하고 난 후, 진영은 세상을 미워하기로 한다. 그리고 세상에 맞서 싸워보기로 한다. 과거의 가치가 무너지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진영은 새로운 전망이 없더라도 일단 현실세계의 부조리에 맞서 항거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여성인물은 여전히 자폐적인 상태이고 타자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로 사회화되기 어려운 조건이지만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이에 대한 대결을 결심하게 됨으로써 향후 새로운 정체성 모색의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렇듯 전쟁 직후, 남편의 부재상황으로 이중고를 겪는 여성인물들을 통해 ‘부인(否認)의 원체험’을 확인해보았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는 사회에 대한 내면화로 나아가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하지만 이로 인해 여성인물은 현실 세계의 가치를 부정하게 되고 부정된 아버지의 권위에 다른 무엇을 대체하지 않은 채 히스테릭한 자아의 불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현실과의 대결을 선택한다. 이는 박경리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주체화양상이 기존 주체화양상과 다를 것임을 예고한다.

### 3. 이분법적 여성관에 맞선 주체화의 가능성

박경리 초기작품 속 여성인물들은 아버지 부재 상황, 소문에 의한 명예

살인과 탈향, 여성가장에 대한 성적 대상화와 가난이라는 ‘부인(否認)의 원체험’을 경험한다. 아버지 부재상황에서 유년을 지낸 여성인물로서는 이를 대체하는 상징적 아버지인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를 내면화할 수 없었다. 남성중심의 섹슈얼리티를 통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권위에 순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특히, 사회는 여성에게 더욱 가혹한 잣대를 들이밀었다.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성의 주체적 섹슈얼리티는 억압했고 가부장제에 순종하는 여인상과 이를 거부하는 여인상을 각각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여성관으로 여성을 분할하여 규율하였다. 여성은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뿐, 여성이 자의식을 갖고 자신의 욕망을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박경리의 작중 여성인물들은 고향에서 더는 살 수 없는 상태에서 탈향을 감행한다. 이런 여성에 대한 이중적 잣대는 전쟁미망인이 되어 여성가장이 된 이후에는 더욱 강력해진다.

박경리의 초기작품들에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경험하는 여성주인공들이 등장한다. 그녀들은 주관적이며 타자와 교류하지 못하고 있거나 혼란스러운 나머지 자아분열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성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에서 이런 사회를 내면화한다는 것은 여성인물이 생존을 위해 자존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좋았던 과거, 자아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었던 유년시절을 가진 적 없는 여성 인물에게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안겨주고 미래에 대한 비극적 전망을 갖게 한다. 이런 이유로 박경리의 초기작품 속 여성인물들은 하나같이 결벽증적인 성격에 세상과 교류하지 못하고 세상과의 단절, 자기 내면으로의 고립을 자처한다. 자아개념과 사회적(남성적) 모범형 사이에서 모순을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경리의 초기작품들이 여기서 멈춘 것은 아니다. 초기작품 속 여성인물들이 남성과는 다른 방식의 주체화를 이룰 것이라는 가능성은 작품 속에 희미하게나마 존재한다. 소위 착한 여자와 나쁜 여자로 대별되는 두 여성인물을 통해 각각의 여성상이 갖는 허위를 드러내고 이런 분할이 인위적인 것이고 무의미한 것임

을 밝히는 방식의 서사가 그 예가 될 것이다.(『애가』, 『표류도』, 『마녀와 성녀』) 또한, 이분법적 여성관을 대표하는 각각의 여성인물들은 서로의 분신이 되어 서로의 자아 속에 들어있는 타자의 욕망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각성하며 새로운 자아정체성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회오의 바다』에서 병숙과 상혜는 서로 다른 상반된 성격을 가진 여인들이다. 상혜는 아름답고 총명하면서도 순종적이고 세상물정 모르고 순수한 여성으로 며느리와 아내,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순종적이다. 이에 반해 병숙은 결벽증적이며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약혼자가 있지만 아직 독신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이다. 이 둘의 관계에서 주목할 것은 병숙이 상혜에게 보내는 온정적인 시선이다. 이분법적 여성관에 따르면 상혜는 좋은 여자의 범주에, 병숙은 나쁜 여자의 범주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우정을 나누는 관계이며 나쁜 여자인 병숙은 오히려 좋은 여자인 상혜를 붙잡히 여긴다. “정숙하고 가냘픈 인형아! 너는 있는 것이지,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상혜를 향한 병숙의 속마음은 상혜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연민이다. 이는 대인관계에 폐쇄적이고 결벽증적인 병숙이 상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혜를 향한 병숙의 시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병숙이 원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닌 사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신의 자존을 지키고 자신의 욕망을 긍정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다.

아직 병숙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각성이 없는 상태지만 다만 상혜의 삶을 통해 한 사람의 소유로 생활에 만족하며 살기는 어렵다는 자각을 하고 있다. 병숙은 자의식이 강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고독하지만 그 외의 다른 선택, 즉 상혜와 같은 삶은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결국, 박경리 초기소설에서 여성인물은 불행할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의식을 지키며 삶의 질곡을 감당하는 주체적 삶의 자세를 보여준다. 스스로 고단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세상과 대결하고 끊임없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여성인물은 초기소설 속에서 여전히 유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법과 질서에

포섭되지 않는 다른 양상의 주체화 과정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세속과 타협하지 않는 결벽증적인 여성인물이 보여주는 사회에 대한 신경증적인 반응이 유아적 단계에 머문 듯 자폐적 경향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폭력적인 가부장제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거부이자 저항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런 이유로 박경리의 초기소설적 여성인물들이 이후 여성 주체화 형성을 위한 각성과 사회의 내면화에 이르게 될 때에는 주체화의 방식이 ‘동일시’의 방식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는 것이다.

박경리는 부재한 아버지의 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한다는 전망과 함께 여성 억압적인 현실에 맞선다.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아버지가 부재한 그 자리에 새 아버지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세상과 맞서는 것이다. 오히려 박경리는 자존을 갖고 주체화를 도모하는 또 다른 여성들을 통해 이분법적 여성관에 대한 도전을 시도한다. 사회에 대한 내면화를 보류한 채, 수많은 타자를 만나면서 인간과 삶에 대한 각성에 매진한다. 남성중심적인 관점에서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으로 여성을 분할하여 규율화하는 것에 반대하고 각각의 여성상으로 대표되는 여성인물들이 결국, 서로를 욕망하고 서로를 통해 자신을 각성하면서 여성을 분할하는 이분법적 사고와 이중적 잣대를 형해화하는 전략을 쓰는 것이다. 때론 여성의 욕망에 대한 긍정을 낭만적 사랑으로 치환하기도 하지만 박경리의 낭만적 사랑의 서사는 세상의 규율에 반기를 드는 사랑으로 통념적 가치관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전제한다.

물론 초기작품에 이 모든 서사가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초기작품들이 맹아적 단계에서 ‘부인(否認)의 원체힘’을 중심으로 이 경험이 여성인물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성찰하는 ‘여성적 글쓰기’의 단계였다면, 그녀의 여성주체화 양상은 아버지의 질서인 상징계로의 편입을 위한 주체화 양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징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며 읽은 것이다. 『애가』와 『표류도』, 그리고 『성녀와 마녀』 등으로 이어지는 이후 작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타자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주체화의 구체적 과정이 서술된다고 보이고 이는 이후의 연구로 남기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박경리, 박경리문학전집 19 『불신시대』, 지식산업사, 1987, 7-331쪽.

### 2. 단행본

강진호, 『주체 확립의 과정과 서사적 거리감각 : 박경리의 60년대 소설 연구』, 『현대소설사와 근대성의 아포리아』, 소명출판, 2012, 80-102쪽.

권명아,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책세상, 2000, 24-27쪽.

김경수 외,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229-249쪽.

김우중, 『인간에의 증오』, 『한국현대문학전집』제11권, 신구문화사, 1966, 495-510쪽.

김치수, 『불행한 여인상』, 『박경리와 이청준』, 민음사, 1982, 11-18쪽.

배리 소운, 권오주·김선영·노영주·이승미·이진숙 역,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한울아카데미, 2005, 24쪽.

자크 라캉, 권택영 역, 『자크 라캉-욕망이론』, 문예출판사, 1994, 11-95쪽.

쥬디스 키건 가디너, 김열규 역, 『여성의 정체성과 여성의 글』,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88, 231쪽.

### 3. 논문

김상욱, 『박경리의 초기소설연구-증오의 수사학』, 『현대소설연구』, 제4호, 한국현대소설연구회, 1996.6, 287-308쪽.

김혜정, 『박경리 소설의 여성성 연구』,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1999, 1-152쪽.

배지선, 『해체, 글씨기의 ‘여성적 실천’: 식수(cixous)의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하나의 독해』, 『2015 여성학논집』제32집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5, 3-28쪽.

안미현,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과 가능성』, 『사고와 표현』, 제2집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09, 61-81쪽.



- 유수연, 『박경리 장편소설 연구 : 여성성의 변모과정을 중심으로』, 전북대 박사학위논문, 2013, 1-182쪽
- 유중호, 『여류다움의 거절』,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339-349쪽.
- 이금란, 『박경리 소설에 나타난 가족이데올로기 연구』, 숭실대 박사학위논문, 2006, 1-205쪽.
- 이승윤, 『1950년대 박경리 단편소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제18호, 한국문학연구학회, 2002, 229-233쪽.
- 장미영, 『박경리 문학의 여성인물 원형 연구-초기단편소설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4권1호, 대중서사학회, 2018, 449-477쪽.
- 한점돌, 『박경리 문학사상 연구(2)- 박경리 초기소설과 예고이즘』, 『현대소설연구』, 제4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2, 359-389쪽.
- 홍사중, 조남현 편, 『한정된 현실의 비극』, 『박경리』, 서강대학교출판부, 1996, 44-56쪽.

## Abstract

A study of the subjectivation in the Park kyoung-ri's early novels

Kim, Yae-ni

In terms of feminine writing, I will investigate the feministic success of Park Kyung-ri's novels by studying what the memory of denial means to female characters in Park kung-ri's early novels and how they overcome the memory of denial. Female characters in Park kung-ri's early novels do not have fathers. In this situation, their family consists of a mother and daughter in their childhood. The image of their fathers is negative or is not appeared. Because their mothers shows just maternal instinct without femininity, or they are dominated by neighbor's disdain, the female characters can not identify themselves with their mothers. The female characters in Park Kyung-ri's early novels have a difficulty psychologically individualizing for building up their basic identify. And the memory of denial becomes escaping home due to rumors in hometown such as honor killing. The female characters choose to escape their community which blames women about a love affair by unfair standard to women, even though men and women do that together. Female characters who cannot join the community are forced out on autistic situation, they can choose only to escape their home for keeping their lives. Lastly, the memory of denial in Park Kyung-ri's early novels is a double torture. One is they feel they are sexual object as a matriarch, another is a poverty. The female characters seem to accept their situation for keeping their lives

because they are living in the male-dominated society which considers female characters as a sexual object. But they deny to be a part of that society. They cannot accept patriarchal order and androcentric sexuality. It is not a simple matter of right and wrong. The female characters autonomously choose it for the way to live, not the way to be. I think this point can make people to estimate the feministic value of Park Kyung-ri's early novel. Also, it implies that Park Kyung-ri's female characters will deny dichotomous view of woman and have uncompromising attitudes against patriarchal system by showing their subjectivation.

Key words : Park Kyung-ri, Park kung-ri's early novels, subject, subjectivation, the memory of denial

■ 본 논문은 2019년 7월 10일에 접수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9년 8월 19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